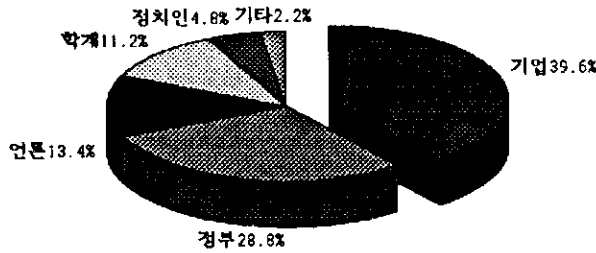


3. 世界化 관련 國民意識調查 結果

(94.11.24. 서울시민 500명 대상 전화조사)

- 서울시민 과반수는 世界化와 國際化를 비슷한 것으로 인식
- '地球環境保護등 世界的인 問題에 능동적으로 參與하는 것'을 세계화로 인식
- 세계화 추진의 가장 큰 걸림들은 '公務員의 無事安逸과 不正腐敗'
- 세계화 推進 시기에 대해서는 大體的으로 肯定
- 앞으로 세계화를 主導하게 될 集團은 '企業'

○ 세계화를 主導하게 될 集團은 기업(39.6%), 정부(28.8%), 언론(13.4%)의 순



○ 世界化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, 처음 들어보거나(14.2%) 용어 정도 들어 본 사람(51.5%)이 65.7%임

○ 世界化와 國際化는 「비슷하다」(55.8%) / 「다르다」(34.0%)

- 세계화에 대한 認知度가 높을수록, 세계화와 국제화가 다르다고 응답

○ 세계화의 의미

내 용		
1.	지구환경보호 등 세계적인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	22.8%
2.	무역을 활성화시켜서 세계의 교역량을 늘리는 것	19.2%
3.	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대국이 되는 것	15.8%
4.	외국문화를 보다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세계적인 시각을 가짐	15.0%
5.	기업의 경영활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하는 것	13.6%
6.	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는 것	6.4%
7.	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	3.8%
8.	기업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	1.2%

○ 우리나라의 世界化 水準은 100점 만점에 53.5점

○ 推進 時期에 대해서는 긍정('좀더 일찍' + '時期 適切')이 58.4%

- '아직은 國內問題에 力點을 두어야' 할 때라는 否定的인 입장도 38.8%나 됨

내 용		
1. 좀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	30.4%	(58.4%)
2. 시기 적절하다	28.0%	
3. 아직은 국내문제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	38.8%	(38.8%)
4. 잘 모르겠다	2.8%	(2.8%)

○ 세계化 推進의 가장 큰 걸림돌

내 용	
1.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	29.0%
2. 비능률적인 정부조직	16.8%
3. 국민의식의 결여 및 부도덕성	16.4%
4. 우리 국민들의 배타적인 성향	11.6%
5. 기업들의 창의성 및 투자 부족	8.8%
6. 기업들의 부도덕성	6.0%
7.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부족	5.8%
8. 통치자의 비전 부족	4.4%
9. 기타	1.2%

○ 「세계化 推進이 國內의 政治·經濟·社會問題 解決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」는 질문에 대해서 59%의 응답자가 肯定的으로 응답

○ 「世界化를 추진한다고 우리의 傳統文化가 退色하지는 않을 것」이라는 응답이 72.8%로, 세계化에 따른 傳統文化 퇴색에 대한 憂慮 水準은 그리 높지 않음

○ 세계化 推進의 當面課題로는 ① 國民意識이 先進化되어야 한다(24.0%) ② 社會의 安定(21.0%), ③ 公務員의 意識改革(14.8%) ④ 정치권의 개혁 및 수준향상(11.6%), ⑤ 정부 조직의 효율적 개편(9.2%), ⑥ 각종 규제의 완화(4.2%)의 順임

(이 병 두)